

사고손상 위험요인 제거 지속 노력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1 프롤로그

**‘4차 공인’ 추진 전략 마련
국제안전도시 롤모델 주력
용역 착수·안전학교 운영**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022년 제주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에 맞춰 ‘국제안전도시 롤 모델 제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도민 ‘안전 체감도’는 지난 13년간 위상을 다져온 제주 국제안전도시의 중점 과제이다.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는 2007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 (ISCCC)로부터 안전도시로 인증 받은 후 2012년 2차, 2017년 3차 공인에 성공했다.

이에 힘입어 제주소방안전본부는 2022년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에 대비해 올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 사고예방정책 개선과 발굴 사업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등 동력 확보에 나섰다.

8개월간 도내 안전 관련 내·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기존 사고예방정책 평가와 함께 개선책을 찾는다. 신규 사고예방정책사업 발

굴과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예방정책 개발 등도 포함됐다.

최근 5년(2014~2018년)간 제주 사고손상 사망자 조사망률(인구 10만명당)이 64.1명으로 전국 평균(55.4명)을 상회하는 점을 감안, 지역특성에 맞는 사고예방정책을 발굴해 손상률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제안전도시 롤 모델 제주’ 구현을 위해 안전증진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유형과 고령화·이혼 증가 등에 따른 계층별 취약 분야에 중점을 두고 아동·청소년, 노인, 교통, 지역, 화재, 수난, 관광·스포츠, 폭력범죄, 산악 등 45

개 기관·단체에서 116개 사고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 6개 종합병원과 손상감시시스템을 구축, 예방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학교 안전인프라 확보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3년간(2017~2019년) 도내 학교 내에서 한해 평균 13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국제안전학교’ 시범운영에 들어간 뒤 2022년 국제안전학교 공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도내 인구·관광객 증가와 급속한 도시화로 안전환경이 복잡해지는 만큼 전략적 사고예방정책 발굴에 소

23.6 X 14.2 cm

한라일보

벌초 기간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9월 사고 집중... “안전장구 착용을”

추석을 앞두고 도내 전역에서 본격적으로 벌초 행렬이 이어지자 제주 소방당국이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1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도내에서 발생한 예초기 안전사고는 34건이다. 이 중 벌초가 집중되는 9월에 발생한 사고가 13건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월별 발생현황은 3월 1건, 4월 1건, 5월 3건, 6월 10건, 8월 4건, 9월 13건, 10월 2건 등이다.

연령대별 예초기 부상 인원은 50대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9명), 50대(5명) 등의 순이다.

예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계 칼날이 돌에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발목이 긴 장화나 장갑, 보

호안경, 안면보호대 등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예초기 각 부분의 볼트와 너트, 칼날의 조임 등 부착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벌초 작업 중에는 반경 15m 이내에 사람이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벌초 작업을 중단하거나 이동할 때는 반드시 예초기 엔진은 정지해야 한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추석을 앞둔 벌초시기 예초기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과 함께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즉각 출동태세를 확립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17.7 X 7.3 cm